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제3회 정기공연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이상한 강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 11. 16.(일) 오후 5시 |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해주시는 분들 무용감독 | 정은혜 강사진 | 홍도은, 양설희, 김조안 연출 | 김재현 음악작곡 | 최원형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재단

협력 강릉시

강릉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판타지 무용작품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는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강릉의 지역적 정서를 녹여낸 작품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던 앨리스는 시계태엽이 감기는 소리와 함께 환상의 세계 '이상한 강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앨리스는 강릉 대나무 숲의 신비로움, 커피 향이 가득한 판타지의 공간, 바다의 깊고 잔잔한 숨결을 마주하며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내면의 성장을 발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무용교육예술의 결실로 학습자들이 상상력과 움직임을 통해 자신과 지역,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여정. 그 빛나는 순간을 함께 지켜주세요.

시놉시스

#1. 앨리스의 일상

단조롭고 반복된 일상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앨리스. 그때 멀리서 시계 태엽 감기는 소리가 들려오며 그 신비한 소리에 이끌린 앨리스는 어느새 낯선 세계의 문 앞에 서게 된다.

#2 강릉의 시계 토끼들

멀리서 들려오던 시계 태엽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순간 나무가지(나뭇결)를 든 토끼들이 앨리스를 둘러싼다. 강릉의 토끼들은 시계 태엽을 감아 올리듯 움직이며 앨리스를 향해 낯설지만 신비로운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만들어준다. 앨리스는 그들의 안내를 이끌려 마침내 이상한 강릉의 세계로 발을 디게 되는데..

#3 강릉 대나무숲

이상한 강릉의 첫번째 공간은 푸르고 깊은 강릉의 대나무 숲. 햇살이 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속의 요정들이 서로 속삭이며 움직인다. 숲을 가꾸고 바람의 결을 다듬으며 살아가는 대나무 요정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리듬 속으로 낯선 존재 앨리스의 향기가 스며드는데.. 요정들은 낯선 냄새에 반응하며 앨리스를 향해 다가가고 숲은 서서히 긴장과 호기심으로 물든다.

#4 강릉, 환상의 커피숍

이상한 강릉속, 또 하나의 낯선 공간이 열린다. 그곳은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하지만 어딘가 기묘한 환상의 커피숍. 사람들은 앨리스에게 커피잔을 내밀며 '한모금 마셔보라' 속삭이고 그 순간 커피숍 안은 춤에 홀린 사람들의 세계로 변한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무대 위, 앨리스는 춤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커피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5 강릉의 바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 향긋한 향은 푸른 물결이 되어 앨리스를 바다로 이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강릉의 바다 한 가운데에 서있는 앨리스. 그곳에서 만난 물고기들과 바다 생명들은 앨리스를 따스히 감싸며 환상의 춤을 펼친다. 하지만 이내 거센 파도와 역경이 밀려오고 앨리스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휘청이며 중심을 잃은 앨리스 앞에 강릉의 바다속 물고기들이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가 힘을 북돋운다. 그들의 응원속에서 앨리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스스로 균형을 찾아 일어서게 되는데.. 이상한 강릉의 바다속, 앨리스는 두려움을 딛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6 다시, 일상으로

수많은 즐거움과 낯선 경험 그리고 휘몰아치는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법을 배운 앨리스. 어제와 같은 길 위지만 그 길 위의 앨리스는 더 단단하고 빛이난다. 이상한 강릉의 여정을 지나 앨리스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다.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들을 소개합니다!



강다윤 강다현 권나연 권보민 권지윤 김민서



김민지 김서윤 김시윤 김아현 김예나 김예린



김예서 김지원 김지윤 김지현 김하울 남유주



박규리 박다유 박서윤 박소윤 박한준 박희수



성연서 심채연 유예안 이수련 이아루 이재린



이지윤 장윤정 전하윤 지은새 최라임 추연아 홍라희